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부모, 부릉! 부릉! 브루이즈, and others with their respective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알짜 국어 문법, 나의 성공비결, and other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나의 성공비결, and other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1일(음 6월 25일 癸巳)

36년생 경협에서 얻어지는 인식이 유용하리라. 48년생 핵심을 짚어야 할 때다. 60년생 원칙을 따르라. 72년생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다. 84년생 군세고 끈질긴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19, 76

42년생 인간관계 속에서 크게 허덕이는 모습이다. 54년생 기본적인 것에 충실 하는 것이 좋다. 66년생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만회할 기회가 흔하지 않겠다. 78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해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92, 25

“4년만의 총무로...밤잠도 설치요”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 조윤 役 강동원

서늘한 눈빛과 휘날리는 긴 머리카락. 도포가 헐거워 보일 정도의 매마른 몸. 영화 ‘군도:민란의 시대’(이하 군도)에서 서자 출신의 야심이 조윤을 연기한 강동원의 모습이다.

배우 강동원이 돌아왔다. ‘초능력자’(2010) 이후 군대에 갔던 그는 4년 만에 총무로 복귀했다. 19세기 말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군도’의 출연은 2년 전 사석에서 윤종빈 감독을 본 게 시발점이었다.

“이야기를 나누 본 후 ‘이 양반 범상치 않다. 영화 잘 찍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귀작으로 사극을 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장르에 대한 애착도 없었고요. 감독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강동원의 말이다. 장편 영화만 10편을 넘게 찍은 톱배우지만 4년의 공백이 주는 여파는 꽤 컸다. 개성을 앞두고 일상생활은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고, 밤은 불면의 고통을 안겼다.

“요즘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긴장도 많이 되고요. 사회의 전날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감독님과 만나 술 한 잔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 조금 자고 일어났다가 월드컵 결승전을 봤죠. 후반쯤 수면유도제를 먹었는데 연장전까지 잤잖아요. 몽롱한 상태로 연장전을 보고 나서 잠이 들었죠.”(웃음)

그가 맡은 조윤은 나주 토호의 서자다. 민란 도중 가문의 적자가 살해되자 가문의 계승을 노리는 비열한 인물이다. 잔인하지만, 천하제일을 다룰 정도로 뛰어난 무술실력을 지녔다.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데 칼을 잘 써야 하잖아요. 4~5개월 정도 훈련했어요. 액션장면이 많았지만 다치지 않은 이유는 그런 훈련 덕인 것 같아요. 말 타는 것도 개인적으로 잘 맞았어요. 재밌어서 열심히 뒀습니다.”

고된 연습에도 긴 칼을 쓰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고 한다.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칼이 길다 보니 상대방의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액션 장면을 찍을 때 ‘이제 칼의 달인이 됐으니 절대 헛되이 치지 않는다’라고 농을 건네며 상대 배우를 안심시켰어요. 저도 긴장됐기 때문이죠. 또, 칼을 빨리 휘두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휘두르는 속도를 올리며 촬영했습니다.”

오랜만에 복귀작이어서 그런지 애착도 남달랐다.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현장을 떠나기 싫었다고 한다. 데뷔 후 처음으로 촬영을 끝내고 눈물을 흘렸다.

“모르겠어요. 되게 아쉬웠어요. 감독님과도 이야기가 잘 통했고, 형들하고도 사이가 좋았어요. 영화적인 배우도 많았습니까. 오랜만에 연기해서 조윤이라는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었던 게 중반 이후부터였어요. 끝내기가 아쉬웠죠. 심리적인 좀 더 릴렉스(이완)된 상태에서 조윤을 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죠. 촬영이 끝나고 더 찍고 싶었습니다.”

137분에 이르는 긴 촬영시간 동안 그의 인장을 새기는 도드라진 장면이 있다. 의적단 우두머리 대호(이성민)와의 일대일 대결 장면이다. 그는 대호의 칼에 상투가 잘려나간 후 긴 머리를 휘날린다. 삼부 광고의 한 장면이라 해도 손색없을 정도다.



“부스스하게 가려고 했는데 모 살장님이 강력하게 긴 머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짝게 됐어요. 아직도 부스스한 머리가 좋고 생각하는데요...”

영화에서는 그는 ‘대세남’ 하정우와는 차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강동원이 부유하고 준수한 ‘있는 집’ 자제라면 하정우는 우락부락한 백정출신이다. 강동원과는 역할도, 이미지도 겹치지 않는다.

그는 하정우에 대해 “너무 재밌는 형”이라고 말하면서도 라이벌 의식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말했다. “없다고 하면 웃기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어쨌든 좋은 관계예요. 너무 다르고, 이미지도 겹치지 않죠. 영화 끝나고 형이 현대물로 작품 한 번 같이 하자고 했는데, 형이랑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감독 하정우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공과 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일정한 거리를 둔 후 “작품을 조금 보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작품 수는 정우 형에 뒤지지 않는다”는 강동원은 “오랜만에 돌아왔다. 이번 작품은 향후 활동을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배우가 되고 싶어요. 연기와 흥행, 모두 욕심 있어요. 꿈은 크게 가지려고요.”(웃음)

프라이머리 표절 ‘속박’벗었다

‘아이 갓 씨’ 원작자와 저작권 공동 분배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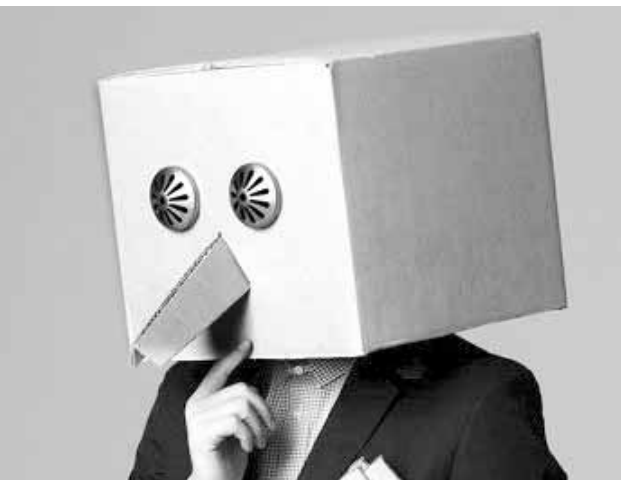
프로듀서 프라이머리(31·본명 최동훈)가 지난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곡들의 저작권을 해외 원작자와 공동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20일 가요계에 따르면 프라이머리는 지난해 11월 MBC ‘무한도전-2013 자유로 가요제’에서 박명수와 함께 ‘거머리’란 팀으로 발표한 곡 ‘아이 갓 씨’(I Got C)의 저작권을 네덜란드 가수 카로 에메랄드 곡의 원작자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6명과 공동 분배하기로 했다.

‘아이 갓 씨’는 발표 당시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자 일부분이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Liquid Lunch)와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데이비드 슈얼러스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논란에 대한 의견을 냈고 결국 ‘무한도전’ 측은 프라이머리와 협의를 거쳐 이 곡의 음원 판매를 중단했다.

또 같은 시기 프라이머리가 작곡해 박지윤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래 ‘미스터리’도 카로 에메랄드의 ‘원 데이’(One day)와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프라이머리 측은 “표절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논란이 된 만큼 카로 에메랄드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코리아의 중재로 수개월에 걸친 협의를 했고 최근 이들 곡의 저작권 분배에 합의했다.



조 대표는 이어 “표절에 대한 판단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이번 저작권 분배가 프라이머리가 표절을 인정했거나 원작자 측이 표절이라고 단정 지은 것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아이 갓 씨’의 저작권이 프라이머리와 다이나믹듀오의 개코, 데이비드 슈얼러스가 이끄는 ‘그랑 모노’ 소속 작곡가 등 8명이 공동 작곡가로 올라가 있다.

또 ‘미스터리’의 저작권도 프라이머리와 데이비드 슈얼러스 등 3명이 작곡가로 돼 있다. /연합뉴스

감우성·수영 MBC ‘내 생애 봄날’ 주인공 캐스팅

배우 감우성(44)과 소녀시대의 수영(24)이 오는 9월 방송되는 MBC TV 수목극 ‘내 생애 봄날’의 남녀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MBC가 밝혔다.

‘내 생애 봄날’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장기 이식을 통해 새 심장을 얻은 여자와 심장을 기증한 여인의 남편이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게 되는 휴먼 멜로 드라마다.

감우성은 축산업체 대표 강동화 역을 맡았다.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아이 둘을 홀로 키우지만, 아내의 심장 이식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여자 봄이(수영)를 만나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제작진은 “세포 기억설(Cellular Memory·장기 이식 수혜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기증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이 수혜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라는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를 바탕으로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명처럼 널 사랑해’ 후속으로 방송된다. /연합뉴스